

제주 바다의 소라·고둥·전복 이름(1)

김 순 자*

차 례

1. 머리말
2. 소라·고둥·전복 이름
3. 소라·고둥·전복 이름 관련 언중 의식
4. 맺음말

1. 머리말

이 논문은 제주 바다에 서식하는 권패류¹⁾ 가운데 소라류, 고둥류, 전복류 이름에 대하여 지역에 따라 어떻게 부르고 언중들의 관념 속에는 어떤 특징이 담겨있는지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소라는 지역에 따라서 ‘구쟁기, 구쟁이, 구제기, 고둥’, 전복은 ‘점복, 줌복, 줌복, 전복’ 등으로 불리고, 고둥은 ‘보말’로 통칭되고 있다. 이들 소라와 전복·고둥은 모양과 색깔, 크기, 습성 등에 따라 이름이 달리 나타난다. 또 지역에 따라 같은 종류도 다르게 부르는 경우가 있다. 가령 개울타리고둥과 남방울타리고둥 비슷한 고둥을 제주에서는 ‘곰쟁이, ㄱ메기, 줌

* 제주대학교 국어상담소 연구원

1) 소라나 우렁이와 같이 껍데기가 하나로 둘둘 말린 고둥류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조개처럼 껍데기가 둘로 이루어진 패류는 ‘쌍패류’, ‘쌍각류’라고 한다.

ㄱ메기, 코트대기'라고 부른다. 또 소라도 모양과 크기에 따라서 '문둥(민둥)구제기, 쌀구제기, 조쿠제기(좁쌀구쟁기)' 등으로 이름을 다르게 부른다. 이처럼 제주에서는 바다 패류 이름이 제주시와 제주시 동서부, 서귀포시, 서귀포시 동·서부 지역에서 그 이름이 약간씩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논문은 필자가 직접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문헌 조사와 선행 연구 자료²⁾를 참고하였다.

조사는 제주시를 중심으로 동쪽인 구좌읍 하도리(2007년 10월),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2006년 7월, 2007년 6월), 남원읍 태흥1리(2006년 7월), 서쪽인 제주시 이호1동(2007년 5·6월), 애월읍 하귀2리(2007년 5·6월)·애월리(2007년 5월), 한림읍 귀덕리(2007년 10월), 한경면 판포리(2008년 1월)·신창리(2007년 12월)·용당리(2007년 7월) 등 10개 마을에서 이루어졌다(괄호 안은 조사 시점). 연구는 조사 지역의 소라·고동·전복 이름이 어떻게 불리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 이름을 어휘론적으로 분석해 그 특징을 알아보려고 한다. 또 제보자들의 구술 자료를 토대로 언중들의 관념 속에 그 특징들이 어떻게 내재되어 있는지도 고찰할 것이다.

2. 소라·고동·전복 이름

2.1. 소라

소라는 소라과의 연체동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10종이 알려져 있다. 껍질은 원뿔 모양이고 뿔이나 늑이 껍질 표면에 있으며 각구는

2) 이정재·백문하, '濟州沿岸에 分布하는 海洋動植物의 地方名'에 관하여-魚貝類, 《研究報告》 6, 제주대 해양자원연구소, 1982./ 姜榮峯, '濟州島方言의 動物 이름 研究-語彙論을 中心으로', 경기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3. 이정재 등은 100여 종의 어패류 가운데 서귀포·북촌·우도·모슬포·한림 지역에 대한 지방명을 조사하였고, 강영봉은 제주도방언의 소라 이름 등을 어휘론적으로 고찰하였다.

등글고 크다. 가장 큰 특징은 뚜껑이 석회질이고 소선형이다.”³⁾ 제주 사람들은 제주 바다에 사는 소라는 10종의 소라 가운데 ‘소라’라는 이름이 붙은 해산패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 소라가 소라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제주에서는 ‘소라’라고도 부르고 있지만, ‘구제기, 구쟁기, 구쟁이, 고동, 고동’ 등 다양한 지역명으로 불리고 있다.

‘소라’는 옛 문헌의 ‘쇼라’가 단모음화한 이름이다. 소라 이외의 ‘고동’에 대응하는 제주어는 ‘보말’이다.

海螺 바다히 나는 {쇼라}《동의보감 2:12》

螺螄 {쇼라}《역어유해 하:38》

螺 {쇼라} 라《왜어유해 하:25》

螺 贏 {쇼라}《물보 상:12》

2.1.1. 구제기·구쟁기·구쟁이·고동·고동

‘구쟁이, 구제기·구쟁기·고동·고동’은 모두 ‘소라’의 제주어 이름이다. ‘구쟁이, 구제기, 구쟁기’를 분석하면 {긧+앵이, 긧+에기, 긧+앵기}이다. 여기에서 {긧-}은 ‘굴조개’를 뜻하는 ‘구조개’, 바닷가에 쌓인 굴 껍질을 뜻하는 ‘구죽’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 흑산도에서는 소라를 ‘꾸주기·꾸저기’⁴⁾라고 부르고 있고, 정약전의 《자산어보》 ‘劍城贏’의 속명(仇竹⁵⁾과도 관련이 있는 어휘가 아닌가 한다.⁶⁾ {-에기}, {-앵기}, {-앵이}는 동물 따위

3) 權伍吉·朴甲萬·李俊相 공저, 《원색 한국패류도감》, 아카데미서적, 1993, 248쪽.

4) 이돈주, 《전남방언》, 형성출판사, 1979, 123쪽.

5) ‘劍城贏 俗名 仇竹’. 정약전 지음·정문기 옮김, 《자산어보》, 212쪽.

6) 《자산어보》의 ‘구죽’이 제주에서 말하는 ‘구제기, 구쟁이, 구쟁기’와 같은 종류의 소라는 아닌 것 같다. ‘구죽’ 다음에 보이는 ‘다사리’(제주 ‘마타살, 마타실’)가 ‘구죽’의 작은 놈(小劍螺 俗名 多士里 卽 劍城贏之小者-정약전 지음·정문기 옮김, 《자산어보》, 212쪽 참조.)이라고 설명된 것을 보면, 여기에서 ‘구죽’은 제주의 ‘마타살’보다 큰 ‘메옹이’ 종류로 판단된다.

에 붙는 축소사이긴 하지만, ‘소라’에는 ‘어리다’는 뜻으로 쓰이지는 않은 것 같다. {-에기, -앵기, -앵이}의 접미사가 쓰인 다른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 에기(애기): 송에기, 염송에기, 청두미에기, 물토새기, 평빙에기,
- 앵이: 지스앵이, 봉앵이, 고녕이, 지녕이, 버앵이 등.
- 앵기: -앵이에 ‘기’이 첨가된 형태(이 형태로 나타나는 이름은 아직 찾지 못하였다.)

소라 이름을 마을별로 보면, 제주시 서쪽 마을인 제주시 이호1동, 애월읍 하귀2리와 애월리는 ‘구쟁이, 구제기’라 하고, 한경면 판포리와 신창리·용당리는 ‘구제기, 구쟁이’가 실현되는데 ‘구제기’가 우세한 편이다. 또 제주시 동쪽 마을인 구좌읍 하도리는 ‘구쟁기’와 ‘고동, 고동’,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는 ‘고동’,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1리는 ‘구쟁기’라 한다.

소라는 또 크기와 모양에 따라 {민둥-, 문둥-, 쌀-, 살-, 조ㅎ-, 줍쓸-}이라는 접두사가 첨가되기도 한다. 크기가 크고 늙어서 껍데기에 빨 같은 돌기가 사라진 소라는 ‘민둥구쟁기, 문둥구쟁이, 문둥구쟁기, 문둥구제기, 문둥이, 큰고동, 대소라, 큰구쟁이’로, 소라가 성숙하고 돌기인 ‘살’이 왕성한 중간 크기의 소라는 ‘쌀구쟁이, 쌀고동, 살구쟁이, 살구제기, 중소라, 중고동, 중고동’으로, 아직 어리고 작은 소라는 ‘줍쓸구쟁기, 조쿠쟁이, 조쿠제기, 존구쟁이, 존소라, 존고동’ 등으로 부른다.

2.1.1.1. 민둥구쟁기·문둥구쟁이·문둥구쟁기·문둥구제기·문둥이·큰고동·큰구쟁이·대소라

‘민둥구쟁기, 문둥구쟁이, 문둥구쟁기, 문둥이, 큰고동, 큰구쟁이, 대소라’는 소라가 굵고 소라 껍질 끝면에 있었던 돌기인 ‘살’이 문드러져 몽툰한 모양을 한 늙은 소라를 말한다. ‘민둥구쟁기, 문둥구쟁이, 문둥구제기’의 {민둥-}과 {문둥-}은 ‘(일부 명사 앞에 붙어) 그것이 없음 또는 그것이 없



<사진 5> 문둥구제기



<사진 6> 쌀구제기

는 것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로서, 표준어 '민-, 민둥-'에 해당한다. '민둥산', '민머리', '문둥데가리', '문둥탈', '문둥광대' 등도 다 이들 접두사가 붙어서 형성된 어휘들이다. 따라서 '민둥구제기, 문둥구쟁이' 등은 겹질에 붙었던 뿔 같은 돌기가 오래되어서 사라지고 몽푹해진 모양에 견주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문둥이'는 {문둥+이}로 구성되었는데, 여기서 '이'는 사물을 뜻하는 의존명사이다. '큰고동, 큰구쟁이, 대소라'는 {큰-, 대(大)-}와 소라를 나타내는 {고동}과 {소라}가 연결되어 이루어진 이름으로, 보통 소라에 비해 크기가 크다는 의미를 지닌다.

제주시 서쪽 마을인 제주시 이호1동은 '문둥구쟁이, 큰구쟁이', 애월읍 하귀2리는 '민둥구쟁이', 애월읍 애월리는 '문둥구쟁이, 문둥구제기', 한림읍 귀덕리는 '문둥이', 한경면 판포리는 '문둥구제기, 문둥구쟁이', 한경면 신창리와 용당리는 '문둥구제기', 제주시 동쪽 마을인 구좌읍 하도리는 '큰고동, 대소라, 민둥구쟁이',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1리는 '민둥구쟁이'로 나타난다. 이를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조사 안 된 내용은 빈칸으로 처리했음.)

이호1동	하귀2리	애월리	귀덕리	판포리
문둥구쟁이	민둥구쟁이	문둥구쟁이 문둥구제기	문둥이	문둥구제기 문둥구쟁이
신창리	용당리	하도리	고성리	태흥1리
문둥구제기	문둥구제기	민둥구쟁이		민둥구쟁이

2.1.1.2. 쌀구쟁이 · 쌀고동 · 살구쟁이 · 살구제기 · 중소라 · 중고동 · 중고동

‘쌀구쟁이, 쌀고동, 살구쟁이, 살구제기, 중소라, 중고동, 중고동’은 크기가 중간쯤 되는 소리를 지역별로 달리 부르는 이름이다. 이 소리는 껍데기에 쌀 같은 돌기인 ‘쌀’이 왕성하게 나 있는 소리를 말한다. ‘쌀구제기, 쌀고동, 살구쟁이, 살구제기’는 껍질에 붙어있는 ‘쌀(살)을 중시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쌀’은 또 지역에 따라서 ‘살’로 연음화하여 ‘살구쟁이, 살구제기’로 나타나기도 한다. 즉 소라 껍질에 붙어있는 돌기를 나타내는 {살-, 쌀-}이 접두사로 쓰여 소라의 모양을 형상화하고 있다. ‘중소라, 중고동, 중고동’은 중간 크기인 소라여서 붙여진 이름이다.

마을별로 보면, 제주시 서쪽 마을인 이호1동은 ‘쌀구쟁이’, 애월읍 하귀2리는 ‘쌀구쟁이 · 살구쟁이’, 애월읍 애월리는 ‘쌀구쟁이’, 한림읍 귀덕리는 ‘쌀구제기, 쌀구쟁이’, 한경면 판포리는 ‘쌀구제기’, 한경면 신창리는 ‘살구제기’, 한경면 용당리는 ‘쌀구제기’로 실현되고, 제주시 동쪽 마을인 구좌읍 하도리는 ‘중고동, 중고동, 중소라, 쌀고동’으로 나타난다. 이를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조사 안 된 내용은 빈칸으로 처리했음.)

이호1동	하귀2리	애월리	귀덕리	판포리
쌀구쟁이	쌀구쟁이 살구쟁이	쌀구쟁이	쌀구제기 쌀구쟁이	쌀구제기
신창리	용당리	하도리	고성리	태흥1리
살구제기	쌀구제기	쌀고동 중고동		

2.1.1.3. 조쿠쟁이 · 조쿠제기 · 줍살구쟁기 · 존구쟁이 · 존소라 · 존고동

‘조쿠쟁이, 조쿠제기, 줍살구쟁기, 존구쟁이, 존소라, 존고동’은 크기가 작은 어린 소리를 일컫는 이름이다. ‘조쿠쟁이, 조쿠제기, 줍살구쟁기’는 ‘소리’를 뜻하는 ‘구쟁이, 구제기, 구쟁기’에 작은 것을 비유하는 {조ㅎ-, 줍살-}이 연결되어 지어진 이름이다.

‘조쿠쟁이’와 ‘조쿠제기’는 {조ㅎ+꺄+앵이}, {조ㅎ+꺄+에기}로 분석되는데, ‘조’의 말음 ‘ㅎ’이 삽입되어 ‘조쿠쟁이, 조쿠제기’로 실현된다. ‘존구쟁

이, 존소리, 존고동'은 크기가 작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접두사 '존-(잔-)'이 붙은 이름이다.

크기가 작은 어린 소라를 마을별로 일람해 보면, 제주시 서쪽 마을인 이호1동은 '조쿠쟁이, 존구쟁이', 애월읍 하귀2리와 애월리는 '조쿠쟁이', 한림읍 귀덕리는 '조쿠제기', 한경면 판포리·신창리·용당리는 '조쿠제기'로 실현되고, 제주시 동쪽 마을인 구좌읍 하도리는 '존고동, 존소리, 잔고동, 좁쌀구쟁기'로 나타난다. 이를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조사 안 된 내용은 빈칸으로 처리했음.)

이호1동	하귀2리	애월리	귀덕리	판포리
조쿠쟁이 존구쟁이	조쿠쟁이	조쿠쟁이	조쿠제기	조쿠제기
신창리	용당리	하도리	고성리	태흥리
조쿠제기	조쿠제기	좁쌀구쟁기 존고동		

2.1.1.4. 문다두리 · 문다닥지 · 문데기 · 돌포말 · 썬데기 · 남탱이보말



<사진 7> 문다두리

'눈알고동'은 '문다두리, 문다닥지, 문데기, 돌포말, 썬데기, 남탱이보말' 등 지역에 따라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 '문다두리'는 {문(門)+다(閉)+두리}, '문다닥지'는 {문+다+닥지}, '문데기'는 {문+데기}, '돌포말'은 {돌+포+말}, '썬데기'는

{썬+데기}, '남탱이보말'은 {남+탱이+보말}의 구조로 이루어진 소랏과 고동 이름이다.

'문다두리'와 '문데기'의 '문'(門)은 고동의 입구에 '눈알'처럼 둥근 뚜껑

(문)이 있다는 뜻이고, ‘다-’는 ‘닫다’의 어간으로 ‘문이 닫혀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두리’)는 ‘둥근 것’에 해당하는 고어로, ‘문다두리’는 ‘둥그런 문이 닫혀 있는’ 형상을 본 따서 붙여진 이름이다. ‘돌포말’과 ‘돌보말’은 고등의 모양이 돌처럼 단단하고 크기가 ‘고등’처럼 작아서 ‘보말’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이다. ‘돌포말’은 {돌ㅎ+보말}로 이루어진 합성어다.

‘써데기’는 고등 맛이 쓰다는 데서 연유한 이름으로, ‘써-’은 표준어 ‘쓰다’에 대응하는 제주어 ‘씨다’의 어간에 관형형 어미 {-ㄴ}이 연결된 ‘써-’에 축소사 ‘-데기’가 결합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문데기’의 ‘-데기’도 축소사이다.

‘남뎡이보말’은 남색을 나타내는 ‘남(藍)-’에 축소사 ‘-뎡이’와 ‘-보말’이 합쳐서 이루어진 이름으로 보인다. ‘남뎡이보말’은 고등의 표면과 ‘똥’ 색깔이 파란 빛을 띠는데다 고등의 크기가 자잘한 데서 지어진 이름이 아닌가 한다. ‘문다닥지’는 {문+다+닥지}로, ‘닥지’는 문의 역할을 하는 눈알고등의 뚜껑이 단단한 딱지로 되어 있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보인다. 따라서 ‘문다두리’와 ‘문데기’, ‘문다닥지’는 모양과 크기, 역할에 따른 이름이고, ‘돌포말’은 고등의 성질과 크기, ‘써데기’는 맛과 크기, ‘남뎡이보말’은 색깔과 크기에 따른 이름이다. 마을별로 보면, 제주시 이호1동·애월읍 하귀2리·애월읍 애월리·한림읍 귀덕리는 ‘문다두리’, 한경면 판포리는 ‘문데기’, 한경면 신창리는 ‘써데기·문데기’, 한경면 용당리는 ‘돌보말’,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는 ‘돌포말’,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는 ‘남뎡이보말’,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1리는 ‘문다닥지’로 실현된다. 이를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이호1동	하귀2리	애월리	귀덕리	판포리
문다두리	문다두리	문다두리	문다두리	문데기
신창리	용당리	하도리	고성리	태흥1리
써데기 문데기	돌보말	돌포말	남뎡이보말	문다닥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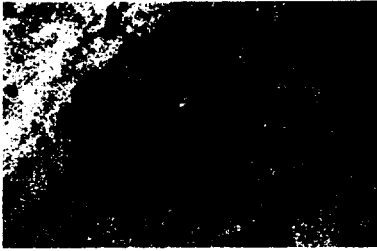
7) ‘-두리’에 대해서는 2.2.2.에서 자세히 다루려고 한다.

2.2. 고동

고동은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연체동물 복족강의 동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 소라, 소라고동, 총알고동 따위처럼 대개 말려 있는 껍데기를 가지는 종류”를 일컫는다. 그러나 제주에서 고동은 ‘보말, 보멸, 보물’로 고동류를 통칭하는 말이다. 고동의 제주어인 ‘보말’이 어디에서 연원한 이름인지는 알 수 없지만, 《표준국어대사전》과 권오길 등의 《原色韓國貝類圖鑑》에 ‘보말고동’이 등재되어 있는 것을 보면 ‘보말’이라는 이름도 오래전부터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보말’은 또 조개류의 ‘비말, 베말’과 그 이름이 유사해 이들 조개류와도 연관이 있어 보인다. 고동도 모양이나 색깔 등에 따라 종류가 많으나, 여기에서는 ‘먹보말’(구멍뚫고동), ‘수두리보말’(팽이고동), ‘코트데기·곰생이·ㄱ메기’(모양이 개울타리 또는 남방울타리고동 비슷한 고동), ‘가메기보말’(타래고동), ‘메옹이, 메홍세·마타살(실/슬)’(두드럭고동)에 한정한다. 언중들은 ‘문다두리, 돌포말, 썬데기, 문다닥지, 문데기’ 등으로 불리는 눈알고동을 ‘보말’로 인식하고 있지만, ‘눈알고동’은 소랏과여서 2.1.항에서 다뤘다.

2.2.1. 먹보말·먹보멸

‘먹보말’은 표준어 ‘밤고동’에 해당하는 제주어 이름이다. ‘먹보말, 먹보멸’은 {먹+보말(보멸)}의 구조로 이루어졌는데, 색깔이 먹처럼 검다[黑]는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색깔이 검고 단단한 돌을 ‘먹돌’(차돌), 색깔이 검은 말을 ‘먹가라(말), 나무 속 곁이 검은 사육을 ‘먹사오기’라고 하는 것처럼 색깔이 검은 동물이나 식물 따위에 연결되는 접두사 ‘먹-’을 붙여서 검은색을 강조한 이름이다. ‘먹보말’은 색채에 따른 이름으로, 다른 고동과 달리 제주 전역에서 공통으로 나타난다.



<사진 8> 먹보말



<사진 9> 수두리보말

2.2.2 수두리, 수두리보말

‘수두리’ 또는 ‘수두리보말’은 표준어 팽이고등⁸⁾에 해당하는 제주어 이름이다. ‘수두리’는 아주 많고 혼하다는 의미인 ‘수두락하다’에서 연유해서 “한 곳에 많이 모여 살기 때문에 ‘많다’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하고 고등의 습성과 관련해서 해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팽이고등 밑면의 모양이 둥근 데서 연유한 이름이 아닌가 한다. ‘수두리’는 {수+두리}로 분석되는데, ‘수’의 뜻은 확실하지 않으나 ‘두리’는 ‘둥근 것’을 뜻하는 고어 ‘두리’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즉 ‘수두리’의 ‘-두리’는 ‘둥근’의 뜻을 나타내는 접미사인 셈이다. ‘두리’가 쓰여 둥글다는 의미로 쓰인 어휘는 이외에도 여럿 보인다.

- 圓 두리 원<<천자문-광주본 35>>.
- 던 업슨 두리 닛 鍾盤에 물 뜻은 筍을 7득이 담아 니고
 <<교시조 2578:24>>
- 두리반: 여럿이 둘러앉아 먹을 수 있는, 크고 둥근 상.<<표준국어대사전>>
- 반병두리: 닛쇠로 만든 그릇의 하나. 둥글고 바닥이 평평하여 양푼

8) ‘팽이고등’은 국어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 여기에서 표준어라고 한 것은 권오길 등의 <<원색한국패류도감>>에 수록된 명칭에 따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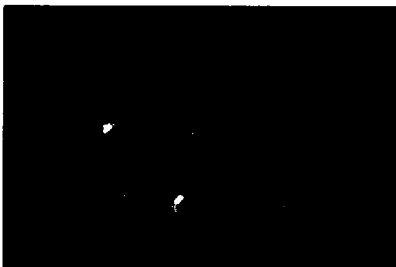
과 비슷하나 매우 작다. 《표준국어대사전》

○ 두벙두리⁹⁾: 제주의 전통소주 ‘고소리술’을 고을 때 소주가 흘러나오는 구멍에 맞게 제작된 술병 이름. 소줏고리에서 흘러나오는 술을 받아서 담은 병이라고 하여 ‘바지팽’이라고도 부른다.

눈알고동의 제주어 이름인 ‘문다두리’의 ‘-두리’도 뚜껑 모양이 ‘눈알’처럼 둥글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한편 ‘수두리, 수두리보말’은 제주 전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이름이다.

2.2.3. 코트데기 · 곱셈이 · 곱셈이보말 · ㄱ메기 · 줌ㄱ메기



<사진 11> 코트데기

<사진 10> 가메기보말과 코트데기

‘코트데기, 곱셈이, 곱셈이보말, ㄱ메기, 줌ㄱ메기’ 등으로 불리는 이 보말은 패류도감¹⁰⁾의 ‘개울타리고동’ 또는 ‘남방울타리고동’과 모양이 비슷하다. ‘코트데기, 곱셈이, 곱셈이보말, ㄱ메기, 줌ㄱ메기’ 등의 이름은 고동의 습성과 모양, 크기에 따라 붙여진 것 같다.

9) ‘두벙두리’라고 발화하는 경우도 있다. 또 두 병 분량의 술이 들어간다고 해서 ‘두벙들이, 두벙들이’라는 민간어원도 있지만, 술병의 밑바닥이 둥그렇게 되어 ‘두벙두리’가 아닌가 한다.

10) 권오길 등이 지은 앞의 책을 말한다.

‘코트데기’는 “보말’ 깔 때 잘 까지지 아녕 ‘닥지’가 잘 툫아지난 코트대기 쉼 허는 썩이라.”¹¹⁾라는 구술을 보더라도, ‘코트데기’라는 이름은 고동의 습성에 따라 붙여진 이름이다. ‘코트데기’는 {코+퓌+데기} 또는 {코+툰+에기}로 분석된다. {코}는 ‘그릇 따위의 입구에 달리 코, 또는 부리의 일부분’에 해당한다. {퓌-, 툰-}은 표준어 ‘따다’의 어근 ‘따-’에 해당하는 제주어 ‘퓌다, 툰다’의 어근이며, 여기에 동물 따위에 붙는 접미사 {-데기, -에기}가 붙어 형성된 어휘로, 고동의 습성과 크기에 따른 이름이다. ‘코트데기’는 다른 보말과 달리 크기가 작다.

‘코트데기’의 다른 이름인 ‘곰생이’는 {곰+생이}로 분석되는데, 여기에서 {곰-}은 ‘바닷가의 경계가 되는 곳’을 말하고, {-생이}는 동물 따위의 작은 것에 붙는 축소사로서, ‘바닷가에 사는 작은 고동’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강+생이’(강아지), ‘춤+생이’(참새), ‘뭇+생이’(망아지), ‘코+생이’(용치놀래기) 따위의 ‘-생이’도 다 마찬가지다.

“물들어야 곰바리(곰바르) 잡는다.”는 제주 속담의 ‘곰바르’의 ‘곰-’도 바닷가 경계가 되는 곳을 말한다. 즉 이 속담은 물을 썰 때라야 해산물을 많이 잡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물이 밀려 와야 바닷가에 사는 허드레한 ‘곰생이’ 따위의 해산물을 잡으려고 부산을 떠느냐는 훈계의 의미가 담겨 있다. 따라서 ‘곰바르’는 곧 ‘곰생이’와 연관된 어휘로 판단된다. ‘곰생이’의 서식 장소는 곧 바닷가 경계가 되는 조건대여서 ‘곰생이’라는 이름은 바닷가에 사는 고동의 서식 습성과 작은 크기의 고동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곰생이보말’은 이름은 ‘곰생이’에 ‘보말’이 덧붙여진 이름이다.

‘ㄱ메기’는 {곰+에기}로 분석되는데, 축소사 ‘-생이’ 대신 ‘송에기’(송아지), ‘핑빙에기’(꺼병이) 등에 붙는 축소사 ‘-에기’가 붙은 이름이다. ‘ㄱ메기’ 대신 ‘춤ㄱ메기’라고 불리는 곳도 있는데, ‘춤-’은 ‘진짜의’ 뜻과 함께 ‘먹을 수 있는’이라는 뜻이 중첩된 어휘이다.

마을별로 보면, 제주시 이호1동은 ‘코트데기’, 애월읍 하귀2리는 ‘곰생이, 곰생이보말, 코트데기’, 애월읍 애월리는 ‘곰생이’, 한림읍 귀덕리는 ‘곰생

11) 이옥춘(1932년생, 여, 한경면 용당리 출신.) 구술.

이', 한경면 판포리는 '곰생이보말', 한경면 신창리는 '곰생이', 한경면 용당리는 '코트데기', 제주시 동쪽 마을인 구좌읍 하도리는 'ㄱ메기',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는 '코트데기',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1리는 '춤ㄱ메기'로 나타난다. 이를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이호1동	하귀2리	애월리	귀덕리	판포리
코트데기	곰생이 코트데기	곰생이	곰생이	곰생이보말
신창리	용당리	하도리	고성리	태흥1리
곰생이	코트데기	ㄱ메기	코트데기	춤ㄱ메기

2.2.4. 가메기보말 · 가메기수꾸락 · 가메기쫓 · 가마귀보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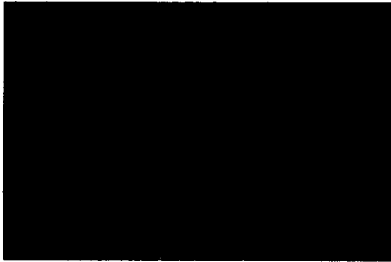
'가메기보말, 가메기수꾸락, 가메기쫓, 가마귀보말'은 패류도감에 실려 있는 타래고동에 해당하는 제주어 이름이다. '가메기보말, 가메기수꾸락, 가메기쫓, 가마귀보말, 가마귀보말'은 색깔이 '가마귀'처럼 검고 모양이 비슷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가메기수꾸락'은 {가메기+수꾸락}, '가메기쫓'은 {가메기+쫓}, '가마귀보말'은 {가마귀+보말} 구성이다. 이 이름들은 까마귀를 뜻하는 제주어 '가메기, 가마귀'와 '보말'(고동), '수꾸락'(순갈), '쫓'(자지) 등이 결합된 것으로, 고동 모양이 이들 모습과 비슷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마을별로 보면, 제주시 이호1동은 '가메기수꾸락', 애월읍 하귀2리는 '가메기보말, 가메기쫓', 한경면 판포리는 '가마귀보말', 한경면 용당리는 '가메기보말, 가마귀보말'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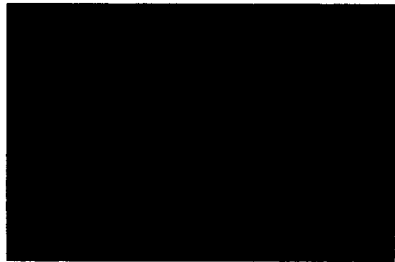
2.2.5. 메옹이 · 메옹기보말 · 메홍세 · 마타슬 · 마타실 · 마타살

'메옹이, 메옹기보말, 메홍세, 마타슬, 마타실, 마타살'은 두드럭고동의 제주어 이름이다. '메옹이 · 메옹기보말 · 메홍세'는 {메+옹이}, {메+옹기+

보말), {메+홍세}로, ‘메-’는 ‘멩다(맷다)의 어간으로 고동의 맛이 맷다는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메옹이’의 ‘-옹이’, ‘메옹기’의 ‘-옹기’, ‘메홍세’의 ‘-홍세’는 접머사로 보인다.



<사진 12> 메옹이



<사진 13> 마타살

‘마타슬, 마타실, 마타살’은 {마ㅎ+다슬(다실, 다살)}로 이루어진 합성어이다. 여기에서 ‘마’는 장마를 뜻하는 제주어이고, ‘다슬, 다실, 다살’은 《자산어보》의 ‘小龜螺 俗名 多士里’와 연관된 이름으로, 《표준국어대사전》에 표제어로 올라 있는 ‘다슬기, 대수리’와 관련 있는 어휘로 보인다. ‘마타슬, 마타실, 마타살’은 즉 ‘장마 때 무리 지어 서식하는 고동’으로, 고동의 생활 습성에 따라 붙여진 이름인 셈이다.

그런데 ‘메옹이·메옹기보말·메홍세’와 ‘마타슬, 마타실, 마타살’은 모양이 거의 비슷한데, 제보자들은 크기가 큰 것은 ‘메옹이·메옹기보말·메홍세’, 작은 것은 ‘마타슬, 마타실, 마타살’로 부르고 있다.

마을별로 보면, 제주시 이호1동·애월읍 하귀리는 ‘메옹이, 마타실’, 애월읍 애월리는 ‘메옹이, 마타실, 마타살’, 한림읍 귀덕리는 ‘메옹이, 마타실’, 한경면 판포리는 ‘메옹이, 마타살, 굴벙이¹²⁾’, 한경면 신창리는 ‘메옹이’, 한경면 용당리는 ‘메옹이, 메옹이’,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는 ‘메옹이’,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는 ‘메옹기보말, 마타살’,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1리는 ‘메홍세·마타살’로 나타난다. 이를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12) 바닷가 고동과 함께 서식하는 두드럭고동은 ‘메옹이’라고 하고, 바다 깊은 곳에 사는 것은 ‘메옹이’라는 이름을 붙이면서도 ‘굴벙이’란 이름을 따로 쓰고 있다. 현 영화(1933년생, 여, 한경면 판포리) 구술.

이호1동	하귀2리	애월리	귀덕리	관포리
메옹이 마타실	메옹이 마타실	메옹이 마타실 마타슬	메옹이 마타실	메옹이 마타살 (굴뱅이)
신창리	용당리	하도리	고성리	태흥1리
메옹이	메옹이 메옹이	메옹이	메옹기보말 마타살	메홍세 마타살

2.3. 전복

전복은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1. 전복과의 조개를 통틀어 이르는 말. 2. 전복과의 하나. 껍데기의 길이는 10~20cm이고 타원형이며 갈색 또는 푸른빛을 띤 갈색이다. 껍데기 입구는 넓고 곁에 구멍이 줄지어 나 있다. 한국, 일본 등지에 분포한다.”고 되어 있다. 권오길 등의 《원색한국 패류도감》에는 한국에서는 전복과는 모두 5종이 알려져 있다¹³⁾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오분자기가 포함되어 있다. 전복과 오분자기는 크기와 껍질에 나 있는 숨구멍(호흡공)으로 구분한다. 전복은 4~6개의 숨구멍이 뚫려 있고, 오분자기는 7~9개가 뚫려 있다¹⁴⁾고 하는데, 전복인 경우는 보통 4개 미만의 숨구멍이 뚫려 있다.

전복은 ‘점복, 줌복, 쯤복, 생복, 전복’으로 부르고, 모양에 따라서 암수를 구분해서 ‘암침복, 암점복’, ‘수침복, 수점복’이라 부르는데, 패류도감의 종 구분과는 다르다. 또 모양에 따라 ‘마드레’라고 부르는 전복도 있다. 새끼 전복을 ‘조갱이, 썸패, 설피역세끼’, 전복 껍질을 ‘겁평, 겁녕’, 잠녀들이 물질할 때 표시 도구로 쓰는 전복의 작은 껍데기를 ‘본조갱이, 본’이라 말한다.

오분자기는 지역에 따라서 ‘오분제기, 오분자기, 오분작, 바르, 떡조갱이, 조개’ 등 부르는 이름이 다양각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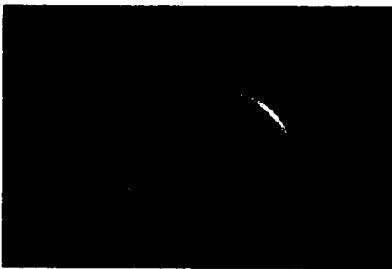
13) 전복, 말전복, 시볼트전복, 오분자기, 마대오분자기를 말한다.

14) 권오길 외, 앞의 책, ‘전복과’ 참조, 226·22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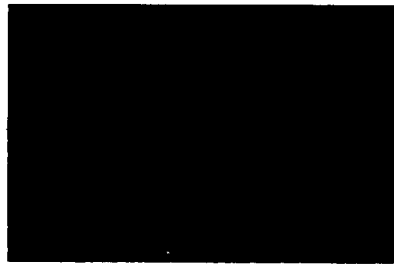
전복은 옛 문헌에 ‘전복’, ‘싱포, 싱복’ 등으로 실려 있는 것을 보면 ‘생복’과 함께 오래전부터 써 온 이름이다.

- 싱포[鯧/石決明]《훈몽자회 상:10》/《역어유해 하:37》
- 싱복《신증유합 상:14》
- 전복(全鰓)《물보 개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에서는 전복의 모양에 따라 전복을 암컷과 수컷을 구분하는 경향이 있다. ‘암전복’은 ‘살 색깔이 희끄무레하고 껍데기가 베짜헌(납작한) 것’을 말하고, ‘수전복’은 ‘전복의 살 색깔이 거무스레하고 살이 많고 전복 껍데기가 움푹한 것’을 지칭한다. 또 ‘마드레’는 ‘모양이 몽푹하니 못 생긴 전복’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어사전》 등 방언사전에 의하면, ‘암전복’은 말전복으로, ‘마드레’는 시볼트전복의 제주어로 보고 있어 언중과 학자들 간에 견해차가 있다. 소라나 고둥 이름과 달리 전복 이름은 제주 전역에서 거의 공통으로 나타난다.



<사진 14> 전복(수침복)



<사진 15> 오분자기

2.3.1. 암침복

‘암점복, 암침복’은 전복의 암컷을 말한다. 이들은 {암+점복, 암ㅎ+점복} 구성으로, ‘암침복’은 ‘암’에 ‘ㅎ받침’을 살린 경우이고, ‘암점복’은 ‘ㅎ’음이

사라진 경우이다. 전복의 암컷을 나타내는 ‘암-’이 접두사로 쓰인 예이다.

2.3.2 수첨복

‘수첨복, 수점복, 수좁복’은 ‘전복의 수컷’이라는 인식 아래 붙인 이름이다. 이들은 {수+첨복, 수+점복, 수+좁복} 구성으로, ‘수컷’을 의미하는 접두사 ‘수-’가 붙어 이루어진 이름이다.

2.3.3 마드레

‘마드레’는 ‘전복 가운데 못 생긴 전복’을 일컫는 이름이다. 또 전복 모양이 다른 전복과 달리 둥근 모습을 하고 있거나 ‘전복의 암컷’의 다른 이름으로 인식¹⁵⁾하는 경우도 있다. ‘마드레’ 또한 제주 전역에서 공통되게 나타나는데,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다.

2.3.4 조갱이·셈페·설피역세끼

‘조갱이’와 ‘셈페’, ‘설피역세끼’는 ‘전복의 새끼’를 말한다. ‘조갱이’는 표준어 ‘조개’에 대응하는 제주어로, 패류의 총칭으로서의 ‘조개’를 말한다. 제주에서 ‘조갱이’는 쌍패류의 ‘조개’를 부를 때도 쓰지만, 전복과 오분자기의 다른 이름으로도 쓰인다. ‘조갱이’는 ‘조개+앵이’의 구조로, ‘조개’를 나타내는 어근 ‘조개’에 접미사 ‘-앵이’가 붙어서 이루어진 이름이다. 접미사 ‘-앵이’는 ‘본조갱이, 떡조갱이’ 등에서도 확인된다. ‘조갱이’는 또 전복 껍데기의 의미로도 쓰인다.

‘셈페’는 {셈+페} 구조로, ‘셈’의 확실한 뜻은 알 수 없으나 ‘페’는 전복의 뜻을 지닌다. ‘설피역세끼’는 {설+피+역+세끼} 구조로, ‘설-’은 ‘아직 다

15) 김일선(1933년생, 구좌읍 하도리) 구술.

자라지 않은' 의미를 지닌 접두사, '피'는 전복을 뜻한다. 이 '피'는 앞의 '괘'와 더불어 전복을 말하는데, 《鷄林類事》의 '鰓曰必'에서 그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역'의 정확한 쓰임새는 알 수 없다. '-세끼'는 '~의 새끼'라는 뜻을 가지는 접미사이다.

'조갱이'라는 이름은 애월읍 하귀2리와 애월리에서, '셈괘'는 한경면 용당리, '설피역세끼'는 남원읍 태흥1리에서 조사되었다.

2.3.4. 겁녕·겁평·본조갱이·본

'겁녕'과 '겁평'은 전복의 껍질을 일컫는 제주어이다. {겁+녕, 겁+평}의 구조로 이루어진 어휘로서, '겁-'은 껍질을 나타내는 어근이고, '-녕, -평'은 접미사로 쓰였다. '본조갱이'는 {본+조개+앵이}의 구조로, '본'은 '어떤 표지를 하는 물건'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여기에서 '조갱이'는 크기가 작은 전복 껍데기임을 알 수 있다. '본조갱이'는 잠녀들이 전복 따위를 발견하고도 숨이 짧아 따지 못할 때, 다시 전복을 찾기 쉽게 그 위치를 표시해 두는 전복 껍질을 말한다.

'본'은 '본조갱이'의 축약형으로, 그 기능만을 따져서 부르는 이름이 아닌 것이다. 제주시 이호1동과 애월읍 하귀2리에서는 '겁평'과 '본', 애월읍 애월리는 '겁녕, 겁녕껍데기, 본조갱이[본조갱이]', 구좌읍 하도리에서 '겁녕'이 조사되었다.

2.3.5. 오분자기·오분제기·오분작·떡조갱이·바르·조개

오분자기는 전복과로, 크기가 전복보다 작고 호홉공이 7~9개 달려 있다. 마을에 따라서 '오분자기, 오분제기, 오분작, 떡조갱이, 바르, 조개' 등으로 다양하게 부른다. 이 어휘들은 {오분자+자기, 오분자+에기, 오분자+악, 떡+조개+앵이}로 분석된다. {오분-}의 정확한 뜻은 알 수 없고, 접미사 '-자기, -에기, -악, -앵이' 등은 모두 축소사이다. '떡조갱이'의 '떡'은 오분자

기 모양이 딱딱 비슷하다는 데서 연유한 이름이다. 《표준국어대사전》, 《우리말큰사전》 등 국어사전에 딱조개를 ‘작은 전복’이라고 풀이하고 있는데 ‘오분자기’를 ‘작은 전복’으로 착각해서 올림말로 선정한 것으로 보인다. ‘오분자기’를 딱조개의 방언이라고 표기해 놓은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바르’는 바다 또는 해산물을 가리키는 제주어이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오분자기의 다른 이름으로 쓰이기도 한다. 오분자기를 떼어내는 행위를 가리켜 ‘바르 트다’라고 한다. 바다를 가리키는 ‘바르’는 고어 ‘바르, 바물’의 이형태이다.

- 노피 바르 우횿 들구를 좃는다(高隨海上槎)《初刊本杜詩諺解 15:52》
- 淮水와 바르와 揚州에 혼 俊傑 혼 사르미로소니(淮海惟揚一俊人)《初刊本杜詩諺解 21:21》

‘조개’는 ‘딱조갱이’와 연관해서 살펴볼 수 있는 이름이다.

오분자기 이름을 지역별로 보면, 제주시 서쪽 마을인 제주시 이호1동은 ‘오분제기, 딱조갱이’, 애월읍 하귀2리·애월리·한림읍 귀덕리는 ‘오분제기’, 한경면 판포리와 신창리는 ‘오분자기’, 한경면 용당리는 ‘오분자기, 바르’, 구좌읍 하도리는 ‘오분작’,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는 ‘오분작’,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1리는 ‘조개’로 나타난다. 이를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이호1동	하귀2리	애월리	귀덕리	판포리
오분제기 딱조갱이	오분제기	오분제기	오분제기	오분자기
신창리	용당리	하도리	고성리	태흥1리
오분자기	오분자기바르	오분작	오분작	조개

3. 소리·고동·전복 이름 관련 언중 의식

사면의 바다로 둘러싸인 제주섬 사람들은 바다와 떼려야 뗄 수 없다.

제주 사람들은 물의 바다와 바다 밭을 터전으로 삶을 꾸려 왔다. 먹을거리가 넉넉지 않은 제주 사람들은 바다를 생업의 터전으로 삼아 먹을거리를 해결하고 소득원으로 해산물을 채취해서 살아 왔다. 해산물 가운데서도 소라와 고등, 전복은 패류 채취 품목 가운데 대표적인 해산물이다. 전복과 소라는 소득원이자 특별 음식이었고, ‘보말’로 불리는 고등은 해변 마을 사람들의 반찬거리였다. 이들 패류들은 또 종류가 많은데, 어떻게 구분해서 불렀으며, 각각의 종류에 대해서 언중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구술 자료를 토대로 살펴보고자 한다.

3.1. 소라

소라는 마을에 따라서 ‘구쟁기·구쟁기·구쟁이·고등·고등’ 등 부르는 이름이 다르다. 또 모양에 따라서 ‘민둥·문둥-, 쌀·살-, 조·좁쌀’이라는 접두사를 붙여서 이름을 지었다.

3.1.1. 문둥구쟁이·문둥구쟁기·민둥구쟁이

소라 이름에 ‘문둥-, 민둥-’이라는 접두사가 붙은 소라 이름에 대한 언중 의식은 어떠한가?

- 큰구쟁이인 문둥구쟁이. 질 늙은 거. 문둥구쟁이인 기자 쌀이 엇어. 문드글락허영 그자 이만이, 거는 쌀도 엇고 허난 문둥구쟁이.(제주시 이호1동)¹⁶⁾
- 홀근 건 민둥구쟁이. 민둥인 막 사름 그트민 늙영근에 막 그냥 이 머리 벗어진 사름 닳은 거고.(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¹⁷⁾
- 문둥구쟁기가 쌀 족아도 큰 놈. 눈 베끼 엇어.(제주시 애월읍 애월

16) 고순여(1926년생, 여, 제주시 이호1동) 구술.

17) 김정순(1932년생, 여,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구술.

리)18)

- 쌀구제긴 막 으물하곡. 문등인 커도 으물은 크지 아녀주기.(제주시 한림읍 귀덕리)19)

위의 구술 자료를 보면, ‘문둥-, 민둥-’이라는 접두사가 붙은 소라는 “크기가 크고, 늙어서 껍데기의 돌기(뿔)인 살이 문드러져서 ‘문드글락현’(뭉툰한) 모양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크기는 크지만 알맹이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다.

3.1.2. 중엿구쟁이 · 쌀구쟁이 · 쌀구제기

- 중엿구쟁이, 쌀구쟁이고. 쌀 바짝허게 사는 게 쌀구쟁이.(제주시 이호1동)20)
- 쌀 돋은 건 쌀구쟁이. 쌀구쟁인 왕상허영 쌀 벌긴 거 쌀구쟁이.(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21)
- 쌀구제긴 막 으물하곡. 문등인이 커도 으물은 크지 아녀주기.(제주시 한림읍 귀덕리)22)

위의 구술 자료는 ‘중엿구쟁이 · 쌀구쟁이 · 쌀구제기’에 대한 설명이다. 제보자에 따라서 ‘살-’을 ‘쌀-’로 발음하기도 하는데, 이 소라는 ‘문둥구제기보다는 작지만 소라껍질에 돌기가 왕성하게 돋은 성숙한 소라’임을 알 수 있다. 즉 ‘쌀구제기 · 쌀구쟁이’는 소라 가운데 한창 성숙한 시기로서, 살이 왕성한 때 여물도 많고, 늙어서 살이 사그라지면 여물도 늙어서 살이 빠졌음을 구술하고 있다.

18) 백용관(1928년생, 여,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구술.

19) 홍정희(1927년생, 여,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구술.

20) 고순여 구술.

21) 김정순 구술.

22) 홍정희 구술.

3.1.3. 조쿠쟁이 · 존구쟁이

- 조쿠쟁이 존구쟁이. 구쟁이 췌끔헌 거 조쿠쟁이.(제주시 이호1동)²³⁾
- 구쟁이 존 건 조쿠쟁이. 조쿠쟁이 헤끄만허영 몽클락헌 거 조쿠쟁이.(애월읍 하귀2리)²⁴⁾
- 조쿠쟁이는 존존헌 거.(애월읍 애월리)²⁵⁾

크기가 작은 소라 이름을 설명해주는 구술 자료이다. 구술 내용에서 “췌끔헌 거, 헤끄만 허영 몽클락 헌 거, 존존헌 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조쿠쟁이 · 존구쟁이’는 자잘한 소라이다. ‘췌끄만허다, 헤끄만허다’는 표준어 ‘작다’에, ‘존존허다’는 ‘자잘하다’에 대응하는 제주어이다. ‘조쿠쟁기, 좁쌀구쟁기’ 등으로도 불리는데, 접두사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작은 소라이다.

3.1.4. 문다두리 · 문다닥지 · 문데기 · 돌포말 · 썬데기 · 남댕이보말

눈알고동에 대응하는 제주어 이름은 ‘문다두리, 문다닥지, 문데기, 썬데기, 돌포말, 남댕이보말’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각각의 이름을 보면, 고동의 성격과 모양 등 특징을 알 수 있는데, 구술 내용 속에서도 눈알고동의 특성이 잘 드러나 있다.

- 문다두린 우의 껍데기가 파랑허게 뽕뽕허고 껍데기가 저 무신 거 구쟁이닥살ㄴ찌 뚜꺼운 거 더꺼진 거.(제주시 이호1동)²⁶⁾
- 돌포말은 딱쌀 잇영 고동딱쌀ㄴ찌 췌끄만헌 거 부튼 거.(제주시 구좌읍 하도리)²⁷⁾

23) 고순여 구술.

24) 김정순 구술.

25) 백용관 구술.

26) 고순여 구술.

- 싼데긴 구제기 거제기로 생겼는데, 호끔 씨우릉헤여. 할망덜은 앓
양 문데기, 그자 우린 대나마나 싼데기 경.(제주시 한경면 신창
리)²⁸⁾
- 보말도 우리 종달리선 돌포말엔 허는 건디 이딘 남뎡이보말.(서귀
포시 성산읍 고성리)²⁹⁾
- 두쟁이 더꺼진 것그라 문다닥지.(서귀포시 남원읍 태흥1리)³⁰⁾

첫 번째 구술 내용을 보면, 눈알고동은 껍데기가 파랗고 뚜껑이 소라 껍질처럼 두꺼운 것이 덮여졌다는 것이다. ‘문다두리’는 곧, ‘문 달는 것이 소라딱지처럼 둥근 것’이라는 속성을 반영한 이름임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구술의 ‘돌포말’은 고동의 딱지가 소라와 같이 딱딱한 것으로 되어 있음을 알려준다. ‘돌보말’은 소랏과이지만 ‘보말’처럼 모양이 둥글고 잘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언중들은 또 눈알고동을 소랏과가 아니라 ‘보말’의 한 종류로 인식하고 있다.

세 번째 구술 내용의 ‘싼데기’는 “호끔 씨우릉헤여.”에서 알 수 있듯이 눈알고동의 맛에 따라 붙여진 이름이고, ‘문데기’는 ‘문과 같은 딱지가 달린 작은 고동’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할망덜은 앓양 문데기. 그자 우린 대나마나 싼데기”에서 알 수 있듯이 처음에는 모양을 봐서 이름을 지었다가 나중에 맛에 의한 이름으로 어휘가 변용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네 번째 구술 내용에서는 인근 마을에서는 ‘돌포말’로 부르는데, 고성리에서는 ‘남뎡이보말’이라고 부르다는 내용이고, 다섯 번째 구술 내용의 ‘문다닥지’는 {문+다+닥지}의 형태에서 알 수 있듯이 ‘문을 달는 닥지’, 즉 딱지가 다른 고동과 달라서 붙여진 이름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눈알고동의 모양이나 크기, 맛, 색깔, 속성 등과 관련한 이름이 만들어져 마을마다 다른 이름으로 전승되고 있다.

27) 김일선 구술.

28) 김두선(1919년생, 여,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 구술.

29) 권신규(1917년생, 여,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구술.

30) 양춘희(1936년생, 여, 남원읍 태흥1리) 구술.

3.2. 고등

동물 이름을 지을 때 모양과 색깔, 습성, 성격 등을 고려해 짓는 것처럼 고등의 이름도 예외는 아니다. 작명자의 의도가 고등 이름 속에 숨어 있는데, 그 의도가 언중들에게 전파되어 생명력을 이어가고 있다.

3.2.1. 먹보말

‘먹보말’(밤고등)은 {먹+보말}의 구성으로 이루어진 어휘로, 색깔에 따른 이름임을 알 수 있다. 표준어 밤고등 역시 ‘밤’에서 ‘검다’는 것에서 유추한 이름이 아닌가 한다. 구술 자료는 색깔이 검다는 특징 외에도 먹보말의 모양도 인식하게 해준다.

- 먹보말도 둘레가 곱닥허메. 그것도 껍데기도 엘룬 껍데기고.(제주시 이호1동)³¹⁾
- 먹보말은 흐끔 크고 멘들멘들헌 거.(제주시 하귀2리)³²⁾
- 수두리 이 껍데기가 주작주작. 먹보말은 껍데기가 영 흐솔 뱅뱅 돌아강 허여.(한경면 신창리)³³⁾
- 먹보말은 멘들락헌 거 새카망헌 거 그거고.(제주시 구좌읍 하도리)³⁴⁾

위의 내용을 보면, ‘먹보말’은 다른 고등과 달리 둘레가 곱고 알맹이를 덮고 있는 껍데기가 만질만질하고, ‘문다두리’와 달리 뚜껑이 다른 고등과 마찬가지로 얇은 것으로 되어 있다. 또 ‘먹보말’은 ‘수두리’와 달리 “껍데기가 영 흐솔 뱅뱅 돌아강 허여.”에서 알 수 있듯이 나선이 잘 발달되어 있

31) 고순여 구술.

32) 김정순 구술.

33) 김두선 구술.

34) 김일선 구술.

다. 크기는 다른 고등에 비해 크고, 색깔이 검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3.2.2 수두리 · 수두리보말

‘수두리, 수두리보말’은 팽이고등에 해당하는 제주어이다. ‘수두리’는 원통형의 모양을 하고 있는 고등으로 둘레가 둥근 모양이어서 ‘수두리’라는 이름이 붙은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언중들은 ‘둘레’가 둥근 것보다는 다른 고등들이 둥글둥글한 것과는 달리 ‘수두리’는 끝이 뾰족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 수두리보말은 또꼬망이 쪼작헌 거.(제주시 이호1동)³⁵⁾
- 수두리는 영 또꼬냥 뻐죽헌 거.(제주시 구좌읍 하도리)³⁶⁾
- 수두리보말은 혼물 현 때 이 보말 못 잡아. 알밭디 내려가사.(제주시 한경면 용당리 출신)³⁷⁾
- 수두린 이 겁데기가 주작주작. 먹보말은 겁데기가 영 흐솔 뱅뱅 돌아강 허여.(한경면 신창리)³⁸⁾

앞의 두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수두리’는 “또꼬망이 쪼작헌 거, 또꼬냥이 뻐죽헌 거”여서 다른 고등과의 차이에 주목하고 있다. 두 번째 구술 내용은 ‘수두리보말’의 서식 환경을 알려주고 있다. 물때가 ‘혼물’(한무날) 때는 물써지 않기 때문에 ‘수두리’가 잡히지 않고, ‘알밭디’ 즉 물이 많이 썰 때 드러나는 바다 밭에 가야 ‘수두리’를 잡을 수 있다는 말이다. ‘알밭디’와 반대되는 곳을 ‘웃밭디’라고 하는데 이 곳에는 ‘코트데기, 곰생이, 7메기’ 등으로 불리는 고등류가 서식한다.

35) 고순여 구술.

36) 김일선 구술.

37) 이옥춘 구술.

38) 김두선 구술.

3.2.3 코트데기·곰생이·꺾메기

- 코트데기 저 가망허곡 멘지락허영 그 으물 더꺼진 것이 기낭 엘룬 엘룬헌 거.(제주시 이호1동)³⁹⁾
- 곰생이가 코트데기고.(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⁴⁰⁾
- 꺾메기는 멘뜰락허영 새카망헌 거.(제주시 구좌읍 하도리)⁴¹⁾
- 코트데기엔 허여. 으는 디 자꾸 툐아져. 각도 기차저불곡.(제주시 한경면 용당리)⁴²⁾

‘코트데기·곰생이·꺾메기’는 모두 ‘-데기, -생이, -에기’ 등 축소사가 붙은 이름으로, 크기가 작은 고등이다. 이 고등에 대해 언중들은 “멘뜰락 허영 새카망헌 거”로 인식하고 있다. 즉 표면이 만질만질하고 색깔이 꺼멥다는 외형적인 모습과 뚜껑이 다른 ‘보말’보다 ‘엘룬예룬’(얇디얇은) 것에 주목하고 있다. 고등의 알맹이를 깔 때 끝이 잘 잘라지는 속성을 “깔 때 각도 잘 기차저”와 같이 구술하고 있어 ‘코트데기’라는 이름의 유래를 짐작할 수 있다.

3.2.4 가메기보말

‘가메기보말’은 ‘가메기’ 즉 까마귀 형상에서 유추한 이름이라는 것은 구술 자료를 통해서 확인된다. 이 고등은 색깔이 까마귀처럼 검고, 모양도 까마귀가 앉아 있는 형상이다.

- 가메기보말은 색깔도 가메기치록 거멥허고 서늑도 꼭 가메기가 앉은 것 닳으메.(한경면 용당리)⁴³⁾

39) 고순여 구술.

40) 김정순 구술.

41) 김일선 구술.

42) 이옥춘 구술.

43) 이옥춘 구술.

3.2.5. 메옹이 · 메옹기보말 · 메홍세 · 마타실 · 마타슬 · 마타살

- 마타실 까망허영근에 엉덕 아래 기냥 무룩무룩 막 돌아지메. 마정 현 때 엉덕 아래 그자 그거 아다리 뉘 사름은 막 하영 허여오메. 빈주룽이 그것 맛 좋은 거 메옹이.(제주시 이호1동)44)
- 마타실보고 메옹이라고 헤여.(구좌읍 하도리)45)
- 마타실엔도 허곡 메옹이엔도 허곡. 마엔 혼 군데 수북수북 모아지 거든. 그러니까 마타실이야. 경 아년 때는 메옹이이고. 마지면은 오월 장마에 메옹이도 모인다, 마타실도 모이는 디 모인다고. 마지면은 막 많이 메와지니까 그말이라.(애월읍 애월리)46)
- 메옹이는 이 보멸밭의 나는 건 존존현 메옹이고, 지픈 딘 굴벙이 엔 허영 솔랑허게 요만씩. 그 바당에. 가상엔 요만씩 현 거 오월 장마돼민 막 혼 병덩이 정 무룩이 있어. 마엔 잇텐 마타살이엔 허 메.(한경면 판포리)47)
- 메옹기보말 메와지는 거. 메옹기라 마에 나오니까 마타살이엔 허지.(성산읍 고성리)48)
- 메홍세가 마타살이주게. 메홍세가 씽쓰르허게. 오월 장마에는 메와 지기 때문에 마타살이라고 하지. 마에는 혼 구석에 쟈젠현 게 막 메와져.(서귀포시 남원읍 태흥1리)49)

두드럭고동을 제주에서는 ‘메옹이 · 메옹기보말 · 메홍세 · 마타실 · 마타슬 · 마타살’ 등으로 부른다. ‘메옹이 · 메옹기보말 · 메홍세’는 ‘맛이 쓰다’고 해서, ‘마타실 · 마타슬 · 마타살’은 장마 때 ‘메와져서’(모여서) 곧 무리를 지어 나타나는 습성에 의해서 지어진 이름으로 인식하고 있다.

44) 고순여 구술.

45) 김일선 구술.

46) 백용관 구술.

47) 현영화 구술.

48) 권신규 구술.

49) 양춘희 구술.

‘메옹이·메옹기보말·메홍세’는 보통 하나씩 출현할 때 붙여지는 이름이고, ‘마타솔·마타실·마타살’은 오월 장마 때 수북수북 모아질 때 부르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3.3. 전복

전복은 ‘점복, 즈복, 즈복’ 등으로 나타난다. 소라나 고등과 달리 전복은 모양이나 색깔, 습성에 의한 이름이 아니라 모양에 따라 암수를 구별해서 이름을 붙인 것이 유다르다.

3.3.1. 암침복과 수침복

언중들은 전복의 모양과 색깔에 따라 암수를 구분하고 있다. ‘암침복’은 전복의 암컷으로, 납작하고 색깔에 노린 기가 있고, ‘수침복’은 움푹하고 거무스레한 색깔을 띠고 암전복보다 살이 많다고 인식하고 있다. 전복의 모양과 살의 유무, 색깔 등을 놓고 암수를 구별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전복 내장인 ‘개웃, 개웃’의 색깔 유무에 따라 암수를 구별하기도 한다.

- 그 꺾데기가 영 납수룩허고 흰 건 암침복이고. 먹는 것은 암컷이 맛이 있주게.(제주시 이호1동)⁵⁰⁾
- 암침복은 영 베짜허곡.(제주시 구좌읍 하도리)⁵¹⁾
- 암침복은 납작허고 좀 노린 기가 있어.(제주시 애월읍 애월리)⁵²⁾
- 수침복은 영 움막허영근에 이런 디 시커멍헌 건 수침복이고. 수컨 오물도 하곡 헌덴 허영 기냥 놀채 먹는다 암컷이 맛 좋아. 이젠 암 커 잘 못 봐.(제주시 이호1동)⁵³⁾

50) 고순여 구술.

51) 김일선 구술.

52) 백용관 구술.

53) 고순여 구술.

- 암침복은 배짝허곡, 수컨 그 옛날 줍팍 모양으로 움탕허주기. 수침복은 움탕헌 거 술이 허주기.(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⁵⁴⁾
- 수침복은 이런 것이 영 움막허여.(제주시 구좌읍 하도리)⁵⁵⁾
- 수침복은 이 들레도 검고 요렇게 몽클럭허여.(제주시 애월읍 애월리)⁵⁶⁾
- 점복은 수침복 암침복허는디 요 소롱헌 건 수침복, 납작헌 건 암침복으로 생각헌디 이젠 그 계웃으로, 계웃이 해양헌 건 수커고 파랑헌 건 암커엔.(한경면 판포리)⁵⁷⁾
- 암천복은 배짝허고, 수침복은 우무룩허영근에 빛허고.(제주시 한경면 신창리)⁵⁸⁾
- 수침복은 움수룩허고 암침복은 납작허곡 동그스럽주게. 썸페엔 헌 건 헤끄만 점복.(한경면 용당리)⁵⁹⁾

구술 내용을 보면, ‘암천복’은 “꺾대기가 납수룩허거나 배짝허거나 납작(납작)헌” 것으로, ‘수침복’은 “움탕허거나 우무룩허거나 움수룩허거나 움막허거나 소롱헌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여기에서 ‘암침복’의 특성인 납작하다는 뜻의 어휘를 언중들은 ‘납수룩허다, 납작허다, 배짝허다, 납작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전복의 꺾질이 깊이가 깊지 않고 납작하면 서도 가린 것이 없어 본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의미이다. ‘움막허다, 움수룩허다, 우무룩허다, 움탕허다, 움평허다’ 등은 표준어 ‘움푹하다’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데, ‘수침복’의 전복 꺾대기가 암컷과 달리 움푹하게 깊이 들어갔다는 뜻이다.

한편 ‘소름허다’는 전복 모양이 둥글지 않고 길쭉하다는 의미로, ‘마드레’의 ‘둥근 모양’과 대조를 이루는 표현이다. 한경면 판포리에서는 최근

54) 김정순 구술.

55) 김일선 구술.

56) 백용관 구술.

57) 현영화 구술.

58) 김두선 구술.

59) 이옥춘 구술.

들어 전복 내장 색깔을 놓고 하얀 것은 '수침복', 파란 것은 '암침복'으로 인식하는 등 언중들의 의식도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3.3. 마드레

'마드레'의 정확한 뜻은 확인되지 않지만, 언중들은 '암침복'과 '수침복'과는 달리 '마드레'를 모양과 관련한 이름으로 인식하고 있다.

- 마드레점복은 맛이 엷주게. 마드레엔 또 이상케 생겨.(제주시 이호1동)⁶⁰⁾
- 마드레엔 흰 건 그 점복이라도 크지 못허영 날ㄱ치 막 못 난 거. 이디서 난쟁이ㄱ치 크지 못허는 거. 막 닷 웨영.(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⁶¹⁾
- 지핀디 강근에 굶은점복 옷껍데기에 적 들은 그 점복보곤 마드레엔 허곡. 마드레 점복은 둥그렁허고, 둥시렁허고 그냥 점복은 좀 소름허고, 적은 돌에 막 풀 닳은 것이라도 살강헌 풀이 돌양허곡. 이제 무신 감태 ㄱ튼 것도 오랜 점복엔 돌고.(한경면 판포리)⁶²⁾
- 암침복 보고 마드레엔 허여.(제주시 구좌읍 하도리)⁶³⁾

언중들은 '마드레, 마드레점복'을 '모양이 예쁘지 않고 몽푹하거나 둥근 모양을 한 맛이 없는 전복'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 '마드레'는 깊은 바다에 사는데 오래되어서 전복 껍데기에 감태 등 '적'이 돌아 두께가 '굶은 전복'으로 인식하고 있다. '적'은 전복 껍데기 등에 풀이나 패류 껍질 따위가 붙은 것을 말한다. '마드레'는 또 제보자에 따라서 '암침복'의 다른 이름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다.

60) 고순여 구술.

61) 김정순 구술.

62) 현영화 구술.

63) 김일선 구술.

3.3.4. 조갱이 · 썸페 · 설피역세끼

- 점복은 큰 건 조갱이 큰 건 줌복. 손바닥 안에 드는 거난, 점복새끼
 ㄱ라 조갱이엔 허주기.(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⁶⁴⁾
- 수침복은 움수룩하고 암침복은 납작허곡 동그스럽주게. 썸페엔 헌
 건 헤끄만 점복.(한경면 용당리)⁶⁵⁾
- 생복 죽은 것ㄱ라 설피역세끼엔 허여. 생복을 잘 안 뉘겨주. 그건
 애기. 설피역세끼엔 곱아. 생복 뉘여가는 건디 조개는 아니고양..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⁶⁶⁾

구술 내용에 따르면, ‘조갱이’와 ‘썸페’·‘설피역세끼’는 전복 새끼를 일컫는 제주어이다. ‘조갱이’와 ‘썸페’·‘설피역세끼’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떡조개’에 대응하는 제주어인 썸이다. ‘조갱이’는 잠녀들이 물질하면서 전복을 발견했을 때 표지로 삼기 위해 허리에 차고 다니는 자그마한 전복 껍데기인 ‘본조갱이’에서도 확인된다. ‘썸페’와 ‘설피역세끼’의 ‘썸페’, ‘설피역’의 어원을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썸페’의 ‘페’, ‘설피역’의 ‘피’가 전복의 뜻을 지닌다.

3.3.5. 본조갱이 · 본

- 물질할 때 본은 점복 껍데기. 암침복 껍데기라사 납삭허영근에 영
 등에 이 속곳 띠, 속곳 끈에 영 찢러지주게. 저 본을 영허영 창 당
 기당 영영 나올 ㄱ르에 전복 뼈쪽 봐지른 그거 확 빵 그레 확 데
 경. 그건 개남으로 경허영 낫당 올라왕 숨쉬른 그거 헤영게 봐지른
 그디 강 비창으로 테영 오곡 경허는 거.(제주시 이호1동)⁶⁷⁾

64) 김정순 구술.

65) 이옥훈 구술.

66) 양춘희 구술.

67) 고순여 구술.

- 점복 봐지른 허리에 창 가당 놔뒀 올라왔주기. 것7라 본 놔뒀 왓 쟈 허주. 점복 꺾데기 낱 전복 7르치른 거 방 들어가는 거라.(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⁶⁸⁾
- 점복 따젠 허른 비창 가지고 점복 꺾데기 하나 등에 차. 왜냐하면 이렇게 저만치 푹 얹어지른 못 땅 그대로 나오른 못 좃거든. 경 허 난 점복 봐지른 팍 빠져 던져. 그 하얀 거 보명 가른 여기 부튼 것도 좃을 수 있고, 밋데 것도 좃을 수 있고. 본조쟁이 [본쫓쟁이] 그 런 거 다 창 탕겨서.(제주시 애월읍 애월리)⁶⁹⁾

잠녀들은 전복을 따기 위해서 물속에 들어갔다가 전복을 눈앞에 두고도 그냥 나오는 경우가 많다. 숨이 짧아 전복을 딸 수 있는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잠녀들은 손바닥 안에 들만큼 크기의 전복 꺾데기를 허리에 차고 다니면서 물질도구로 이용했다. 이를 ‘본조쟁이’라고 하고, 줄여서 ‘본’이라고도 한다. ‘본’은 ‘물건을 찾는 바탕이 되는 표지’쯤으로 이해할 수 있으니, ‘본조쟁이’는 잠녀들이 물질할 때 갖고 다니는 표지 도구로 쓰는 전복 꺾데기임을 알 수 있다.

3.3.6. 겁평과 겁녕·겁녕 꺾데기

- 겁평을 우리도 막 하영 메와. 암컨 영 넘석허영 안에 민짜헌 거 막 비짜주게. 암커가 창이 멘짜허영 더 고와.(제주시 이호1동)⁷⁰⁾
- 겁녕 꺾데기. 옛날은 큰 거 이시니까 초원에서 밧디 가민 자리젓 멜젓 가정 강 그것에서 저 요렇게 돌 앓정 불 숨양 지저 먹고 다 그렇게 헛어. 그거는 옛날 거난 이만씩헤. 겁녕, 점복 꺾데기. 암커는 안 돼고 수침복에 이만큼 움평허민 많이 들어. 여기서 겁녕 꺾데기렌. 그거 그릇 어실 때 그릇 대신 췌지게. 움탕허연 크니까.(제

68) 김정순 구술.

69) 백응관 구술.

70) 고순여 구술.

주시 애월읍 애월리⁷¹⁾

전복 껍데기도 지역에 따라 ‘겍평, 겍녕, 겍녕 껍데기, 본조갱이’로 다르게 불린다. ‘겍평, 겍녕, 겍녕 껍데기’는 단순한 전복 껍질을 일컫는 말이지만, ‘본조갱이’, ‘본’은 전복 껍데기의 기능적 이름이다.(3.3.6. 참조). 전복은 알맹이 자체도 유용하지만, 전복 껍질 또한 유용한 도구이자 소득원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구술 자료를 통해 확인된다. 전복 껍질은 소라 껍질과 함께 자개의 재료여서 껍데기를 모아서 팔기도 했으며, 그릇이 변번치 않을 때는 ‘자리젓’(자리돔젓), ‘멜젓’(멸치젓) 따위를 전복 껍질에 넣고 지지는 그릇 역할을 했다. 그릇으로 쓰는 전복 껍데기는 주로 ‘수침복’ 껍데기를 활용했다.

3.3.7. 오분제기 · 떡조갱이 · 오분자기, 바르, 조개

- 점복은 돌 우의 탁탁 부터도 오분제긴 영헌 고망 소곱에서만 크주게. 베껏되 안 부떠. 오분제긴 ㄱ되 고망에 허영 오벼오는 거난 그자 그건 꼭 ㄱ트곡. 기냥 이디 돌 시민 고망 잇주게. 고망에 거 좃앙 그거 떼어오는 거. 저 딱 부트지 아녀. 점복은 돌 우의 탁탁 부터도 오분제긴 영헌 고망 소곱에서만 크주게. 베껏되 안 부떠. 떡조갱이엔도 허곡 오분제기엔도 허곡. 이젠 오분제기엔 허여도 옛날은 떡조갱이엔 해낫주.(제주시 이호1동)⁷²⁾
- 오분자기 다른 말로 바르엔도 허메. 오분자기 트는 것을 바르 튼덴 해낫주.(제주시 한경면 용당리)⁷³⁾
- 생복은 아닌 디 생복 닭은 거 조개.(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⁷⁴⁾

71) 백응관 구술.

72) 고순여 구술.

73) 이옥춘 구술.

74) 양춘희 구술.

오분자기도 마을에 따라 부르는 이름이 조금씩 다르다. '오분제기, 오분작, 떡조갱이, 조개, 바르' 등으로 불리는 오분자기는 전복과 비슷하지만 전복보다 크기가 작고 '숨구멍'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또 구술 자료에 따르면, 오분자기와 전복은 서식환경도 다르다. 오분자기는 돌구멍에 주로 살고, 전복은 돌 위에 탁탁 붙어서 산다는 것이다. "이젠 오분제기엔 허여도 옛날은 떡조갱이엔 헤낫주."라는 구술을 보면, '오분자기'의 다른 이름인 '떡조갱이'가 더 오래된 이름으로 보인다.

4. 맺음말

제주 바다에 살고 있는 '소라·고동·전복' 이름은 형태와 모양, 습성, 색깔, 크기 등에 의해 다르다. 또 이 이름들은 마을에 따라서, 부르는 사람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소라와 고동·전복 이름은 접두사와 접미사를 많이 활용해 짓는데 이는 어휘의 재생산 측면에서도 가치가 있다.

이 논문은 '소라·고동·전복' 이름을 어휘론 측면에서 지역에 따라서 어떻게 부르며, 그 어휘에 담긴 특징은 어떠한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 제보자들의 구술 내용을 토대로 이름에 대한 언중 의식도 살펴보았다.

'소라'인 경우는 '구제기, 구쟁이, 구쟁기, 고동' 등으로 불리는가 하면 모양에 따라서는 '문둥(민둥)구제기(구쟁이, 구쟁기), 쌀(살)구제기, 조쿠제기(좁쌀구쟁기)' 등 지역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이 다르다. 제주시 서쪽 마을인 제주시 이호, 애월 지역은 '구쟁이'가, 한림과 한경은 '구쟁이'와 '구제기'가 함께 쓰이는데 '구제기'가 우세한 편이다.

'눈알고동'인 경우는 '문다두리, 문다닥지, 문데기, 돌포말, 썬데기, 남뎡이보말' 등 지역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이 마을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제주시 서쪽 마을인 제주시 이호·하귀·애월·한림은 '문다두리', 한경면 판포·신창·용당은 '썬데기, 문데기, 돌보말', 구좌 하도는 '돌포말', 성산 고성은 '남뎡이보말', 남원 태흥은 '문다닥지'로 부르고 있다. 이는 모양·성질·

맛·색깔·크기에 따라 이름이 달라지는 경우다.

고동인 경우도, 모양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먹보말’(밤고동)과 ‘수두리’(팽이고동)는 제주 전역에서 동일하게 불리지만 ‘개울타리고동’과 비슷한 고동은 ‘곰생이, 코트데기, ㄱ메기, 춤ㄱ메기’ 등으로 다양하게 불린다. 제주시 서쪽 지역은 ‘곰생이’와 ‘코트데기’가, 구좌 하도는 ‘ㄱ메기’, 성산 ‘코트데기’, 남원 태흥은 ‘춤ㄱ메기’로 불리는 등 고동의 특징과 크기 등에 따라서 지역 이름이 달리 나타난다.

‘두드럭고동’인 경우는 하나씩 부를 때는 ‘메옹이, 메옹기보말, 메홍세’로 나타나고, 장마철에 많이 모이는 습성에 따라서 ‘마타살, 마타살, 마타살’로 부른다.

‘전복’은 소라와 고동과는 달리 모양에 따라서 암수 이름을 구분해 부르는 것이 독특한데, 제주 전역의 공통적인 특징이다.

‘오분자기’는 지역에 따라서 ‘오분제기·떡조갱이·오분자기, 바르, 조개’ 등 다양한 이름이 불리고 있다. 제주시 이호, 하귀, 애월 귀덕은 ‘오분제기’, 한경 판포, 신창, 용당은 ‘오분자기’, 구좌 하도와 성산 고성은 ‘오분작’, 남원 태흥은 ‘조개’로 실현된다. 제주시 이호에서는 ‘떡조갱이’, 한경면 용당리에서는 ‘바르’라는 이름도 나타난다.

한편 ‘전복의 새끼’를 뜻하는 ‘설피역새끼’, ‘셈페’도 나타나는데, 전복의 고어인 ‘피’(비)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 핵심어: 제주바다, 제주어, 소라, 고동, 전복

<참고문헌>

- 국립수산진흥원, 《수산동식물사전》, 현대해양사, 1988.
- 權伍吉·朴甲萬·李俊相 共著, 《原色韓國貝類圖鑑》, 아카데미서적, 1993.
- 남광우, 《古語辭典》, 교학사, 2008(1997).
- 박용후, 《제주 방언 연구》(자료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8.
- 석주명, 《제주도방언집》, 서울신문사 출판부, 1947.
- 석주명, 《제주도자료집》, 보진재, 1971.
- 송상조, 《제주말큰사전》, 한국문화사, 2007.
- 제주도, 《제주어사전》, 제주도, 1995.
- 현평효, 《제주도 방언 연구》(자료집), 정연사, 1962.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1999.
- 한글학회, 《우리말 큰 사전》, 어문각, 1991.
- 신안군, 《巽菴 丁若銓 先生의 詳解 茲山魚譜》, 신안군, 1998.
- 정약전 지음·정문기 옮김, 《茲山魚譜》, 지식산업사, 1977(1992).
- 강영봉, 《濟州島方言의 動物 이름 研究》, 경기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3.
- 이정재·백문하, '濟州沿岸에 分布하는 海洋動植物의 地方名'에 관하여-魚貝類, 《研究報告》 6, 제주대 해양자원연구소, 1982.

<제보자>

- 고순여(1926년생, 제주시 이호1동)
- 권신규(1917년생,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 김두선(1919년생,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
- 김일선(1933년생,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 김정순(1932년생,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 백응관(1931년생,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 양춘희(1933년생,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1리)

이옥춘(1932년생, 제주시 한경면 조수2리-용당리 출신)

현영화(1933년생, 제주시 한경면 판포리)

홍정희(1927년생,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Abstract>

The names of conches, spiral shellfish,
and abalones in the sea of Jeju(1)

Kim Soon-ja

The names of conches, spiral shellfish, and abalones are studied in point of lexicology in this paper. Especially how various the names are and features of each name are introduced. Implication what the names have is also studied through the interviewee's talk.

The names of conches, spiral shellfish, and abalones in the sea of Jeju are designated usually depending on shape, habit, color, and size. Moreover, the names are changed into various forms by region and speakers. When the names formed, many prefixes and affixes are used and it is a valuable point in respect of word reproduction.

- Keywords: the sea of Jeju, Jeju dialect, conches, spiral shellfish, abalones